

80분만에 끝난 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 초반부터 '삐끗'

첫 상견례, 교섭위원의 위상 등...향후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

2018년 처음 노조 설립된 이후 임금교섭이 타결된 적은 없어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5일 돌입한 임금교섭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첫 상견례가 교섭위원의 위상 등에 대한 이견으로 80분만에 중단되면서 향후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노사 실무진은 지난 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2021년도 임금·복리

후생 협상의 첫 절차로 상견례를 진행했지만 약 1시간20분만에 이견을 보인 채 끝났다.

이날 상견례에서 노조 측은 사측 대표 교섭위원의 위상을 놓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대표 교섭위원은 전무급이었지만 올해는 상무급으로 격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급이 낮아진 게 아니라 임차이다. 당초 대표 교섭위원을 맡는 자리가 DS부문 인사지원 그룹장인데 이를 담당하던 해당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팀장이 되자 자연스럽게 현재 그룹장을 맡고 있는 상무가 대표 교섭위원이 됐다 는 것이다.

노사가 교섭위원 구성부터 견제차

를 보이면서 첫 임금교섭 자리가 조기에 종료됐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날 사측에 ▲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자사주(1인당 약 107만원) 지급 ▲코로나19 격려금(인당 약 350만원) 지급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인상 요구안 초안을 전달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첫 만남이 이같이 끝나면서 향후 교섭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다. 노사는 매주 한 번꼴로 만나 교섭에 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다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동안 무노조경영 기조를 유지해 온 삼성전자는 임금교섭 대신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매년 임금 인상률을 정해왔다.

2018년에 처음으로 노조가 설립된 이후 노사가 임금교섭을 벌인 적은 있었지만 임금교섭이 타결된 적은 없었다.

이번 임금교섭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무노조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인 만

큼 결과를 도출할지도 관심사다. 노조 측에서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모두 참여한 공동교섭단을 통해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시 노조의 요청이 있으면 차후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전날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만큼 다시 노조 측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양동시장 식당 불, 소화기 들고 뛰어든 상인들이 꺾다

의용소방대원 상인 6명 '시민영웅' 표창장



광주 서부소방서는 6일 개천절 연휴 기간 중 서구 양동전통시장 내 한 식당에서 난 불을 신속히 꺼 큰 피해를 막은 시장 상인 6명에게 '시민영웅'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 제공)

호남 지역 최대 전통시장 내 식당에서 난 불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으나, 상인들의 발빠른 초기 진화 덕에 화를 면했다.

6일 광주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 9분께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 내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

식당 내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주변에서 시작된 불길이 번지며 통로까지 연기가 새어나오자, 주변 상가에서 상인들이 급히 뛰어나왔다.

상황을 파악한 상인들은 곧바로 상가마다 비치된 1개씩 소화기를 허겁지겁 들고 나와 불길을 향해 소화액을 뿌렸다.

일부 상인들은 육내소화전 문을 열고 꺼낸 용수관을 끌어와 불을 끄기 시작했다. 주변 상인·손님의 도움을 유도하기도 했다.

평소 의용소방대원으로도 활동했던 상인들의 헌신적 진화 덕분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큰 불길이 잡혀 있었다. 소방당국은 식당 곳곳에 남은 잔불을 끈 뒤 신고 접수 16분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불로 식당 실내 10㎡와 가재도구 등이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16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LPG가스 누출에 의한 불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길 주변에 LPG 용기가 있었고, 상가가 밀집해 있고 타기 쉬운 물품이 산재한 전통시장 특성 상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서부소방서는 이날 오전 양동시장을 찾아, 식당 화재에 발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한 상인 6명에게 '시민영웅' 표창장을 전달했다.

서부소방서는 이날 오전 양동시장을 찾아, 식당 화재에 발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한 상인 6명에게 '시민영웅' 표창장을 전달했다.

양영규 서부소방서장은 "화재 상황에서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화 활동을 펼쳤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고법 "순천만동물영화제 집행위원 활동 문제 지적은 정당"...법원, 언론사 손들어줘

문제 지적은 정당"...법원, 언론사 손들어줘

항소심 "언론 제기 사항 합당, 재판비용도 집행위원들이 부담해야"

2018년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와 관련 일부 위원들이 기부금을 받아 인건비로 쓰고, 순천시가 인정하지 않은 단체로 표현한 언론 보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은 서울신문,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일보, 프라임경제 등 4개 언론사가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1억 3000만원을 받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순천시와 관련 없는 민간단체인 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활동이라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 언론사의 손을 들었다. 당초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들 4개 언론사에 대해 집행위원 김모, 양모, 김모, 임모 씨 등 4명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

일 집행위원 4명의 활동에 대한 문 제점을 거론한 기사는 합당하다며 서울신문, 아시아일보, 프라임경제에 내린 손해배상 지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양모 씨 등 집행위원이 부담한다고 판시했고, 이들이 제기한 반론에도 청구도 각하했다. 다만 아시아뉴스통신이 '집행위원들이 가짜 영수증을 과다 발급하려고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들 4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되 소송비용은 20%, 나머지 80%는 집행위원에게 있다고 결정했다.

이들 4개 언론사는 순천시와 별개로 구성된 민간인들이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한 후 기부금 1억 3000만원을 받아



이중 3명이 인건비로 6300만원을 청구고, 집행위원 명단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땀 남자 만나?" 마약 동반 투약 애인 폭행한 30대 영장

마약을 함께 투약한 여자친구를 둔 기로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향정신성의

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긴급 체포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약류를 함께 투약한 여자친구 B씨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광주 관산구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괴롭힌 혐의다.

이슬비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